

분류	구역공과-2017년 32과
제목	전도자의 절대시간① - 24시
성경	에베소서 6:10-20
일시/장소	2017년 8월 6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성경말씀 (에베소서 6:10-20)

-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14/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1. 24시란 무엇인가? → “함께”(마28:20, 롬16:25)

- ▶ 24시란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며 내가 맡은 일이 어디서든 항상 생각하고 올인하는 것이다. (창39:2-6, 사7:14, 마28:20, 막3:13, 히3:1, 히12:1-2)
- 1) 마가다락방의 24시 올인의 방법 (행2:42)
 - (1)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
 - (2) 교제하며- 응답의 흐름을 타는 것.
 - (3) 떡을 떤다-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타는 것.
 - (4)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응답의 흐름을 타는 것.
 - 2) 24시 올인의 결과 (행2:1-47)
 - (1) 사람이 막을 수 없는 5가지 능력이 나타났다.
 - ▶ 행2:1-10, 행2:9-11, 행2:14-21, 행2:41, 행2:42-47
 - (2)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5가지 시간표가 성취되었다.
 - ▶ 행2:1, 행2:5, 행2:18, 행2:42, 행2:46-47
 - (3)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5가지 문이 열렸다.
 - ▶ 행2:1(능력의 문), 행2:9-11(전도의 문), 행2:42(3천 제자의 문), 행2:43-45(경제축복의 문), 행2:46-47(현장 변화와 말씀 성취의 문)

2. 24시에 대한 주님의 약속

- 1) 처음- 막3:13-15
- 2) 마지막- 마28:20, 막16:19-20, 행1:8

3. 전도자의 24시

- 1) 나의 현장
 - (1)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는 것이다.
 - (2) 목회자(말씀과 기도에 올인), 중직자(전도자의 식주인 역할), 평신도(내가 있는 현장과 일, 직업에 올인)
- 2) 나의 달란트
 - ▶ 나에게 주신 평생 달란트, 일의 달란트, 매일 어떤 상황 따라서 나오는 달란트에 24
- 3) 나의 전도
 - ▶ 나의 전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램넬트 7명, 바벨론 승리자들, 롬16장 사람들은 나의 전도를 찾은 사람들이다.

♣ 결론- 3오늘(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기도 행복과 전도를 누려라.

(The end)

♣ 구역공과 - 녹취 자료 ♣

♣ 서론

- ▶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근데 나는 성공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 포기하죠. 아니면 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해봐야겠다. 보통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든지 맡은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걸 제대로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다.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이고 우리 램넬트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이다.
- ▶ 분필은 안 갖다 났네, 칠판은 가져오는데 분필은 안 갖다 났다? 이것도 굉장하히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저 정도 머리 되면 굉장한 머리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칠판, 지우개라고 하면 반드시 분필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빨리 가져와서 다 행이다.
- ▶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다. 그게 이것(24시)이다. 이걸 찾아내면 성공한다. 여러분이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이 이게 안 누리면 다른 사람이 누릴 수가 없다. 이 24시가 뭔지 알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냥 24시라고 하지 말고 이걸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안 되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자는 안 된다. 구원 받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 ▶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한 명 이상에게 아니면 지교회에 가서 그림으로 설명해주시라.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약속하신 것이 뭐가?
신구약 성경에 가장 약속한 단어가 뭐가?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구약 성경에 약속이 뭐냐?
1) 그리스도(누림), 하나님의 나라(기다림), 증인(성령)
(1) 그리스도(누림)
▶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약속이 뭐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되란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단어를 제대로 알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걸 24시 누리는 것이다. 기적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모른다. 여러분 중에 흑암, 재앙이 다 도망간다. 사기꾼에 내 옆에 있어도 내게 사기 못 친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게 영적 힘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재앙이 만민을 덮칠지라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걸 24시 하고 있는데? 아냐, 공부하고 무슨 관계있는가? 안 그렇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아는가? 24시 누리면서 공부하는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바쁘게 말이지요, 장사해보시라. 얼마나 바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다. 오히려 굉장하히 쉬운 것이다.
- (2) 하나님의 나라(기다림)
▶ 그렇게만 했는데 자꾸 불신자 말을 들으려고 한다. 설치지 말고 잔머리 돌리지 말고 기다리면 이게 나온다. 근데 왜 이 나라가 안 나오냐면 나오기 전에 설치버린다. 그러게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설치하는 것과 게으른 건 다른 것이다. 여러분, 빠른 것과 급한 것은 다르다. 그렇죠? 빠른 건 타이밍을 빨리 한 것이다. 급한 것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것과 느린 것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 보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느린 사람 보시라. 숨통이 막히잖아요? 다르다. 이게 교인들에게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줄 곳이 없다. 어떻게 참 성공을 하느냐? 가르쳐줘야 된다.
- ▶ 간혹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 보면 내보고 좀 인정(人情) 없다고 얘기한다. 인정 없는 게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보이면 여러분 안 가도 저는 간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딱 시간표가 오는데?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저와 지금 이 시간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다 싶을 때 급하게 전도하는 것이지 같이 회사에 있다면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냐,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배를 타려고 하고 부산에서는 막 서서 국밥 먹는다. 그건 배 타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다. 굳이 삼시 세끼를 서서 밥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러면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 램넬트들이 다 놓친다. 축복을 다 받아놓고 놓친다. 20차 세계 대회 다 해놓고 놓친다. 아, 교회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놓친다. 이게 안 놓치면 보고 있으면 교회 안에 불신앙이 천 만 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걸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바르게 딱 하면 오게 되어 있다.
- ▶ 내가 어떤 집에 식당 하는 집에 하도 잘한다고 소문나서 가봤다. 못 먹고 왔다. 4시 쯤 왔는데 저녁 시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다 팔렸더라. 설명도 별로 안 한다.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 얼마나 양심적으로 장사 하나면 자기가 아침에 직접 오늘 하루만 팔 고기를 자기가 콜라서 사러 다닌다고 하더라. 누가 싸게 줄게? 적당하게 주는 건 안 산다고 하더라. 사 온 그것만 팔고 끝이다. 내가 보니 참 복음적이다. 그렇게 하면 손님이 올 수밖에 없다.

(3)증인(성령)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성령으로 역사하게 된다. 어머어마하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리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반드시 온다. 앞에는 뭐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램네프에게 가족에게 만나거든 우리 중직자들은 한 사람 이상에게는 꼭 하시라.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오늘 중직자 메시지 들어봤는가? 안 들어봤다고 하면 설명해 주고, 들어봤다고 하면 포럼하면 된다. 이렇게 24시 되는 방법이다. 자, 24시가 굳이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가? 24시, 나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쁜 예를 들어보겠다. 혹시 여러분 앉은 가운데 암 걸린 분 계시는가? 여러분은 지금 24시 하고 있을 것이다. 아픈 것도 24시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으로 능력으로 이걸로 24시 한다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렇죠?

2)천명, 소명, 사명

(1)천명

▶그러면 어느 날 이게 갈보리 산에서 이뤄진 일이란 말이다. 천명이 보인다. 아, 내가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3)당연, 필연, 절대

(1)당연

▶그러면 내가 무슨 큰일, 작은 일을 가리겠느냐?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 사람이 여러분 보고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된다. 아, 당신 여기에 있기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소리 첫 제로 들어줘야 된다. 그래도 절대 나가지 마라. 당신 여기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일하자. 이렇게 들어줘야 정상이다. 당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를 좀 포럼하면서 가르쳐주라. 애들은 모른다. 아니, 내가 내일 뭐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 지지? 걱정하던 말이다. 그게 틀렸던 말이다. 오늘 것이다. 잘해라. 그게 당연이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 안은 어려운데 막 밖에 한다고 다니던데 교회 안에 것도 기도해야 된다. 틀렸던 말이 아니고 당연한 걸 놓쳤던 말이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시라. 우리 여기가 지금 수도권 복음화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도권 복음화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237개 나라가 와서 설 수 있는 교회,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준비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내 생애 내 죽을 때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인 하고 간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게 당연이다. 막 교회를 보면 세상의 것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소명, 사명은 따라온다. 그래야 필연, 절대가 보인다. 이게 24시, 이게 되면 가장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죠? 언제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4)일심, 전심, 지속

(1)일심

▶이때부터 일심이 보인다. 뇌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우울증 환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정신 질환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의사 말 들으면서 이 기도하면 일심으로 치유 되게 되어 있다.

(2)전심

(3)지속

▶그러면 일심, 전심, 지속은 따라오는 것 아닌가? 일심이 안 되는데 무슨 전심을 하는가? 이때부터 성공의 눈이 열린다. 다른 사람 못 본 걸 보게 된다. 이게 중요하다. 똑같은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낸 것이다.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 축구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마지막 하나 넣었다, 시기 하는가? 안 한다.

5)오직, 유일성, 재창조

(1)오직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것이다. 오직이다. 이게 찾아내져 버린다. 이건 교만의 오직이 아니다. 겸손의 오직, 나라도 저 일을 해야 되겠다. 너무 쉬운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를 보니 내가 보기는 한 몇 년을 청소를 안 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전도사인데 너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청소하면 미안하니까 일찍 갔다. 일찍 가서 걸옷 벗어놓고 물 빨아가면서 안에 다 치웠다. 어느 여성이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스타킹도 나오고 많이 나왔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렸다. 나는 원래 검은 바닥이 좋은데 닦으니까 흰 바닥이더라.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놀래더라. 와, 새로 수리했나?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발견한 오직이다. 일단 이 교사들이 제 앞에 기죽은 것이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 상황에 대

해서 브리핑 했다. 아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브리핑 했다. 교인 누구누구 그 집 자녀, 교회 안 오는 아이들, 오는 아이들 다 체크했다. 교사 지금까지 결석한 걸 다 체크했다. 도표 몇 장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유. 그제 제 오직이다.

(2)유일성

(3)재창조

▶오직을 해야 유일성 답이 오고 재창조가 오는 것이다. 앞에 것이 중요하다.

6)24시, 25시, 영원

▶그래서 발견 되어진 게 뭐니까? 이렇게 되어 지면 편안하게 24시가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뭘 24시 한단 말이나? 그리스도, 뭘 24시 한단 말인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내 삶을 24시다. 잘못해도 그리스도다. 내가 잘해도 그리스도다. 그러면 보인다. 아니, 천명이 보이는데 실수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보인다. 저를 쉽게 보이더라. 지금 복음과 전도들을 옳게 모르는 세계 교회다. 이걸 빨리 살리지 아니하면 큰일이 난다. 이게 특별한 일인가? 당연한 일이다.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중요한 게 없다. 일심이다. 드디어 내가 헌신할 것 나라도 해야 될 게 보이더라. 오직이다. 이렇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24시 되어버렸다. 24시가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배 아파봐라. 나올 때 까지 24시 된다. 그렇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을 샀다. 이게 당분간 24시가 된다. 그렇죠? 아,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랑 하는 사람이 있다. 24시가 된다. 하지 말라고 해도? 어디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 24시 안 되는데 부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24시가 되어 진다.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은 한 개는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편안하게 기도를 한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 기도로 연결시킨다. 아, 무슨 일이 있지? 기도로 연결시킨다. 그래서 아, 무엇을 놔두고 왔다. 이런 것 기도를 놔두고 다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같이 가는 사람들 어디 놔두고 다시 자 돌리고 갈 때 보면 스트레스 좀 받지만 그때도 또 기도 하는가? 주여, 하면서 간다. 그러면 이게 보인다.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얼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아이들 말로 그건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24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 떠오르는 사람 있고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어쩔 수가 없다. 황 목사님에게 물어보라. 어떤 사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감사가 나오죠? 어떤 사람 기도해보시라.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걱정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제일 불쌍한 인간이다. 기도하는데 걱정이 된다. 황 목사님은 사람이 좋으니까 기도하면서 이 갈리는 건 없을 것이고 기도할 때 걱정 되는 사람이 있다. 큰일 나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속에서 걱정이 된다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다. 24시란 게 어머어마하다. 24시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25시, 영원이 나올 것 아닌가?

7)결론- 각인, 뿌리, 체질

▶결론이 뭐니까? 그때 이것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 버린다. 어느 날 기도로 뿌리 내리게 된다. 어느 날 내가 증인 될 수밖에 없도록 체질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과 책 읽어보고 포럼하시고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부터 한 번 해보시라. 병이 낫는다니까요? 여러분도 해보시라. 여러분이 해보면 이상하게 내가 병이 없어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병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영적인 병 아닌가? 그게 낫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 영적인 병이 무섭냐면 영적인 병은 시중에 가면 약을 안 판다. 약이 없다. 그래도 정신병은 약이 있다. 의사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되는데 영적인 병은 약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기도하겠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4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주신 축복 24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data.rutc.com ② http://www.jcking.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